

지역 소식통

정읍시, 시민창안대회 뿌리 단계 발표대회 가져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이사장 이봉열)는 지난 30일 내장상동 공감홀러스센터에서 '2022년 시민창안대회 뿌리 단계 발표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2022년 뿌리 단계 소규모 공동체 6개소가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이봉열 이사장을 비롯한 공동체활성화센터 관계자와 소규모 공동체 6개 팀과 공동체 회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열린 경쟁과 화합으로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날 뿌리 단계를 거쳐 성장한 산배공동체가 멘토로 참여해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발표대회 최종 심사 결과 우수공동체로 '하모니양상'과 '젊은문화상인들', '이음커뮤니티'가 선정됐으며, 이들 3개소에는 성장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수여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마을기업, 추석 우수 제품 할인 판매행사 열어

정읍시 소재 마을기업 8개 업체는 지난 31일 정읍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추석맞이 마을기업 제품 판매 및 홍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그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을 돕고 해당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마을기업은 8개 업체로 △다묘야야기(꽃차, 상화차, 잡곡) △다정인(천연염색 스카프) △대흥리 마을공동체(참기름, 들기름) △새미찬(반찬류) △씩씩한 공나물(공나물, 공나물 키트) △지연가(떡갈비, 섬유선식) △공사랑(현미떡, 귀리 가공식품) △헤이람(한과, 현미누룽지)이 참여해 40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3개소(알콩달콩 두손푸드, 유기농(전)도 함께 함)으로써 화합의 장이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

## 전북도지사+14명 시장·군수... 전북도 전체 나서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의 고창 유치를 전북도 전체가 나섰다. 생태·자연 관련 국립 시설이 전문인 전라북도 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임실치즈메이카에서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와 14명의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첫 전북도·시·군 정책협의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심덕섭 고창군수가 갯

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고창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심 군수는 "전라북도는 풍부한 생태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렇다할 국립 시설은 모두 타 지역에 양보해 왔다"며 "이제라도 전북의 명예 제대로 요구하고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큰 박수로 화답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밝혔다.

이날 김관영 전북지사와 14명의 시

장·군수는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의 전북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선 △고창갯벌은 멸종위기 철새의 주요 기착지 및 서식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 등재 △유선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전관리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전북 고창에 건립 △국립 생태시설이 전문인 전북지역에 갯벌 세계자연유산본부를 건립하여 소외된 전북도민의 마음 치유 △염전부지 55만평 개발을 막아낸 고창의 노력 평가 등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전봉준 장군(1855~1895)의 일대기를 담은 제4회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 전봉준 업적 재조명하다

### 정읍시, 장군 일대기 담은 '제4회 UCC 공모전' 개최

정읍시가 전봉준 장군(1855~1895)의 일대기를 담은 '제4회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영원한 민족·민중의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위상을 정립해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콘텐츠 자원을 확보·보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부와 대학·일반부 2개 부문으로 나뉘어 공모 접수 후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시상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팀으로 참가 가능하다.

응모 작품은 4~5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개인 또는 팀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면 타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이 없는 작품이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http://www.jongup.gov.kr>)에

공모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UCC 동영상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11월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총 14팀에 대해 총 2,8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봉준 장군의 민중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재평가되고, 그의 혁명정신이 재조명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꿈꿔왔던 세상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선조들의 혁명정신을 이어가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전의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063-539-543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역 막걸리로 지역 경제 활성화 힘 신는다

### 이학수 정읍시장, 한영석 발효연구소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정읍시가 지역 막걸리 활성화와 전국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막걸리와 그 지역의 명소, 먹거리를 연결하는 사업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31일 생암동 답곡마을에 소재한 전봉 누룩과 기양주, 정명주, 발효식초 등을 생산, 연구하는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를 방문했다.

이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유기농 재료만을 선별해 전통 방식으로 전봉주와 발효식초를 생산하는 생산시설과 발효실, 교육장 등을 둘러봤다.

또, 정명주와 식초, 누룩 등을 시음해 보고 지역 막걸리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설명 들었다.

이와 함께, 한영석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막걸리 업체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호협력력을 통



정읍시가 지역 막걸리 활성화와 전국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시는 안전함과 신선함을 기본으로 전통적인 느낌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 지역 막걸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

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막걸리 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지역의 막걸리와 먹거리를 연계한 차별화된 사업방안을 모색할 것"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92개 공약사업 군민참여 토론회 열어

민선 8기 고창군이 심덕섭호의 92개 공약사업에 대해 군민의견을 듣고 세부 실행계획을 가다듬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창군은 지난 31일 오후 2시 고창문화회관에서 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공약사업 군민 참여 토론회를 열었다. 군민들은 농번기로 바쁜 시기임에도 500석의 자리를 빼곡히 채우면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는 6대 분야(별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농어촌, 좋은 기업·중

은 일자리·생동하는 지역경제, 천혜의 환경, 누리고 즐기는 문화관광 1번지, 안전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 육성, 존중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군민 등) 담당 과장이 92개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군민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타지역 사례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회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에



대한 군의 대책, 갯벌 세계유산보전본부 고창유치, 유네스코 5관왕의 자부심에 걸맞는 관광인프라 대책, 도시약취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추석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부안군은 축산물 부패·변질 위험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9월 2일 까지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115개소를 대상으로 추석명절 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판매·사용,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현지 시정 조치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앞서 부안군은 안전한 축산물 판매와 위생적인 영업장 관리제고를 위해 축산물 위생 관리대장을 손수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책자에는 식육 거래내

역서뿐만 아니라 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과 업소 관리기준, 패테르 부과 기준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이번 위생점검 시 위생 관리 책자 현지 배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엔 축산물의 온도관리가 중요하다.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과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